

## 한국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석연구

최 해 립

서강대학교

김 영 희

경기대학교

최근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양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에서는 학령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남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성차이와 성역할, 여성상담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들의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치유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남성중심사회에서 성장한 상담자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분석하였다. 한국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p < .05$ ). 특히 상담의 과정 및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성성정체감의 비율이 여성상담자는 34.8%, 남성상담자는 26.8%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담자를 상담할 때 그들은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상담자 스스로가 의식향상이 된 양성성정체감의 개인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태도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차이와 성역할, 여성상담 등에 대한 연구가 전개된 것은 1977년에 여자대학에 여성학이 개설되고, 여성전문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1983)과 함께 1984년에 한국여성학회, 여성정신건강연구회(1993), 한국여성심리연구회(1995) 등이 발족되면서 성(gender)의 연구가 체계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하게 되면서이다.

이와함께 교육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의 분야에서는 학령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남녀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역할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이현옥, 1979; 이숙, 1981; 나혜영, 1984; 최연순, 1987; 양효숙, 1990; 장윤선, 1993; 한정신(외), 1994; 김영희, 1995; 이영숙, 1995) 등을

비롯하여,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자아존중감, 무기력, 성공공포, 스트레스, 진로의식수준, 인지능력, 심리적 건강(윤미현, 1983; 이홍립, 1985; 조인선, 1986; 박선숙, 1987; 임수정, 1987; 장재정, 1987; 윤진(외), 1989; 김영희, 1990; 전은경, 1992; 이송자, 1993; 송은경, 1993; 장운선, 1993; 박성은, 1999) 등 주로 심리적 적응변인을 관련시킨 연구, 그리고 여성의 심리적 상처를 여성 중심시각에서 치유하는 상담에 관련된 연구(김영희, 1985; 이영희, 1985; 정소영, 1985; 이은순, 1987; 최해림, 1989; 김은주, 1990; 김동순, 1992; 박애선, 1993; 이규미, 1996; 최해림, 김영희 1996; 이혜성, 1997)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한국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최근의 성차별주의를 지양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남녀 모두는 성역할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의식수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엄격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사회구조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성역할 전통주의를 고수하려는 의식구조가 내재해 있어 여성이 남성성요인, 남성이 여성성요인을 개발하여 남성성, 여성성 특성 모두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적성, 능력 등을 발휘하면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여성은 남성들보다 불안, 우울, 무기력, 자신감 상실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남성보다 더 경험하게 된다(정소영, 1985; 손덕수, 1988; 김영희, 1990; 황원준(외), 1995). 심리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상담을 받으려 오는 내담자들은 주로 여성들이지만, 한국의 남성중심사회에서 활동하는 상담자는 여성심리, 여성의 문제 등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편견을 가지고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다(최해림, 김영희, 1996). 상담자가 성역할고정관념을 가지고 내담자를 상담할 때 내담자들은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그들의 건강한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탐색하고, 그문제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리고 내담자의 개인적 힘(personal power)을 강화시켜 자기양육적인 행동을 고무시켜야 하는, 즉 성별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의식향상이 된 상담자이어야 한다(Alyn & Becker, 1984; 김영희, 1985).

하진의(1989)는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성역할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양성성정체감의 상담자가 상담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내담자에게 선호되고 있어, 양성성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인 성역할 특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적 성역할사회화 과정속에서 성장하여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남녀 상담자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인의 성역할사회화와 성역할정체감

가부장적 가치관의 토대 위에 형성된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의와 명분을 중히 여기는 선비로서 상징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겉손, 순종, 인내, 희생하는 모습으로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의 예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와같은 가부장적제도는 부계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가장의 절대적 권위를 세우며,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하여 남성은 여러명의 첩을 둘 수 있게끔 하며 가부장 가족의 질서와 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여성은 남편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고, 시집에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씨받이와 보조자로서의 삶을 요구받았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한국의 여성은 남성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당연시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한 아픈 삶을 살아온 것이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20여년간 산업화의 발전 등으로 사회 각 부분에 큰 변화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뿌리깊은 가부장적 구조하에서의 한국 가정은 남성은 바깥활동 여성은 집안활동이라는 고정관념적 가치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변화를 체험한 신세대 대학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을 조사한 황은(1991)과 엄인숙(1995)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역할고정관념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엄인숙(1995)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는 아내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여학생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남편을 잘 내조하여 성공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그들이 성역할고정관념에 얽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다”에는 여학생이 95.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20대의 신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 변화하는 의식”에 관한 조사결과(중앙일보, 1995. 4. 15)에서 신세대 여성은 우리사회가 남녀에게 모두 평등한 구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

가 성역할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의식구조를 가진 젊은이들이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노혜숙, 한정신(외) (1998)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여성(20~60세)은 직업을 가질 경우 자녀가 다 크고 난 후 다시 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에 높은 비율(48.0%)로 찬성을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가사일도 자녀돌보기(64.9%), 자녀학습지도(57.6%), 설거지(82.1%), 집안청소(73.7%), 빨래하기(80.7%), 시장보기(74.6%), 가계비 관리(76.3%)가 여성들이 대부분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자녀교육에서는 남녀차별을 두지 않고 자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고 80%가 찬성의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시키는 경우 아들은 57.45%, 딸은 45.95%의 비율로 나타나 실제교육에서는 남아 선호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교육열망은 딸보다는 아들일 경우에 더 갖고 있었다( $p < .001$ ).

이와같이 우리 사회의 남녀에 대한 의식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어느 정도 벗어 났으나, 아직까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통념을 아주 무시하지 못하고 보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파생되어 한국 사회에서 남자의 특성은 「목표를 향한 적극성, 통솔력, 주도력, 자신감, 독립성, 포부와 야망, 운동지향성, 사회의 중추적 역할의 수행능력」으로 표현되며, 이 특성들은 직장의 업무수행이나 사회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성취지향적인 특징들로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여성은 「순종, 의존성, 언어지향성, 동정성, 감정이입, 민감성, 낭만성, 사랑의 지향성」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가정 내에서 집안일을 하고 주변 사람

들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 하는데 더 적합한 특성들로 기대된다(김영희 1990). 성역할 고정관념은 한국인들에게 여자는 여성다와야 하고, 남자는 남성다워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하며, 전통적인 성역할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초기 어린시절부터 시작되는 성역할사회화는 남자와 여자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그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놀이의 종류, 그림동화, TV 만화 등을 통해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차별화 시킨다. 성역할사회화 과정은 사회의 역할 규정과 개인의 역할 수행사이의 연결을 이어주면서 이 연결과정에서 성역할정체감(gender-role identity)이 형성된다. 성역할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동안 전통적인 성역할 과정이 지속되어 오면서 남성은 남성성정체감을, 여성은 여성성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발달이라고 인식되어져 왔었다.

이와같이 한국은 아직도 가정, 학교, 사회에서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특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 지배적이므로, 한국적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남,녀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정신, 김영희, 김영란, 오재립(1994)의 연구에서 학령전 아동(6-7세)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는 남녀 성별(남: 양성성 39.2%, 여성성 28.0%, 미분화 20.0%, 남성성 12.8%, 여: 양성성 44.0%, 여성성 42.4%, 미분화 8.0%, 남성성 5.6%)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p < .01$ ). 특히 양성성정체감이 여아집단(44.0%), 남아집단(39.2%)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 시기에는 양성성의 개인이 자신의 성과 일치된 성역할 유형 즉 남아의 남성성(12.8%), 여아의 여성성(42.4%)을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령전 아동은 성과 관련된 사회관계에 관심을 나타내지만 아직 자신의 성별에 맞는 성역할정체감이 확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의 아동에게 아직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 여성적, 남성적 특성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특성들은 서로 통합되어 한 개인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격차원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적 분화가 이루어져 성역할정체감이 안정되면서 남성은 남성성정체감, 여성은 여성성정체감을 더 갖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1990)의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p < .001$ )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된 성역할정체감으로 안정되어가는 시기가 남성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여성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남성은 남성성정체감(고, 30.0%; 대, 40.6%), 여성은 여성성정체감(고, 31.2%; 대, 39.9%)의 비율이 확연히 높아지면서 자신의 성에 맞는 정체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의 발달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미분화 정체감의 비율이 다른 정체감 보다 가장 높아 고등학교까지 30% 이상을 차지하다가(전은경, 1992; 송은경, 1993) 자아정체감이 안정되는 대학교에 와서도 그 분포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박성은 1999).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가정, 학교에서 성역할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경험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사회와 단절된 학교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기다움」을 찾기 어렵고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접촉시간이 많지 않아 「아버지 다음, 어머니 다음」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사회구조 및 남녀의 역할변화로 인해 성역할의 갈등과 혼미 속의 과도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정신(외) (1993)은 초등학교의 학부모 집단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조사하였다( $p < .001$ ). 학부모 집단중 아버지(남성성, 59.5% ; 양성성, 31.1% ; 미분화, 25.2% ; 여성성, 11.1%)와 어머니 (미분화, 31.4% ; 양성성, 29.3% ; 여성성, 27.6% ; 남성성, 11.7%) 집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모 모두 반대되는 성의 정체감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남성성정체감의 비율이, 어머니에게는 미분화정체감의 비율이 (장하경, 서병숙, 1992) 다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서대룡(1996)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 교사집단은 양성성 31.6%, 남성성 29.1%, 미분화 17.9%, 여성성 21.4%의 순서를 보이고 있고 여자 교사집단은 여성성 30.4%, 미분화 25.9%, 양성성 23.6%, 남성성 20.2%의 비율로 나타났다( $p < .05$ ). 남자 교사들은 양성성정체감이, 여자교사들은 여성성 정체감이 다른 유형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교직이 여성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적 사회화 과정을 거친 한국 남·녀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엄격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사회구조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성역할 전통주의를 고수하려는 의식구조가 내재해 있어 여성이 남성성 요인, 남성이 여성성 요인을 개발하여 남성성, 여성성 특성

모두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구조는 성적 분화가 안정되지 않는 학령전, 초등학교(나혜영, 1984 ; 김영희, 1990 ; 한정신(외), 1993 ; 장윤성, 1993 ; 이영숙, 1995)를 제외한 모든 연령 단계에서 양성성정체감의 저조한 비율, 남성이 여성성정체감을 여성이 남성성정체감을 갖는 비율이 낮은 분포를 차지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과 상담의 효과

21세기 한국사회에서의 상담자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잠재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 개인을 위해 그들의 잠재력과 정체를 일깨워 주어 개인적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가부장적 남성중심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정화된 성역할, 여성비하, 감정억압 등의 사회, 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극심한 자신감의 저하로 그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결과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심리적 장애로 인해 치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정균, 변영찬, 1987 ; 황원준(외), 1995 ; 최해림, 김영희, 1996), 전통적 심리치료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편견을 가지고 여성내담자를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대의 정신의학, 심리학 뿐만 아니라 사회학 방면에 영향을 주었던 S. Freud의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성을 불완전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았으며 이들의 공격성이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수동적, 의존적이며 남근선망과 같은 남성کم플렉스를 갖는다고 하였다. Freud의 이론들은 대다수의 정신치료자들이 치료에서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정신분석학적 지향을 고수하도록 했으며(Sturdivant, 1980),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가부장적 형태인 위계적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주었다.

Broverman(1970)등은 심리치료에서 치료자들이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성차별적 태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정신건강의 이중기준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양성의 치료자들은 건강한 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여성은 건강한 성인 또는 남성보다도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쉽게 영향을 받고, 감정적, 복종적이고, 자만심이 강하며, 독립적, 객관적인 면에서 그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O'Mally와 Richardson(1985)의 연구에서 남녀 상담자들은 성역할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남성다운 그리고 여성다운 특성 모두를 성인의 특성들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결과는 여권신장운동과 성역할 연구결과 등이 상담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상담자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를 분석해 보았다(<표 1>참조). 여성에 대한 태도 문항의 내용은 자신감, 지배성, 수동성, 감정적 통찰, 인간관계, 진로(직업)에 대한 관심,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반응, 지성적, 결정력, 성에 대한 관심, 외모, 도덕성등에서 남·녀의 상담자들이 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1>에서와 같이 상담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에 대한 태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_{1,105} = 9.63, p < .01$ ). 즉 한국의 여성 상담자들은 남성 상담자들보다 여성에 대해 더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

표 1. 상담자의 성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태도 점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남	41	3.39	.33	9.63**
	여	66	3.59	.38	

\*\*  $p < .01$

도 남녀 불평등의 의식구조가 팽배해 있어 한국적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 상담자들 역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화된 사고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평등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담자들의 무의식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내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차별적 대우를 하게 되며, 여성 내담자의 능력이 변화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최해림, 김영희, 1996).

특히 여성상담자들이 남성상담자들 보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사고를 더 갖고 있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잠재가능성을 억압하여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담에서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attitude)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 가치관등에 의하여 내담자를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가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해결의 길을 모색하도록 도울 때 상담의 효과는 촉진될 것이다(이혜성, 1997). 즉 상담장면에서 상담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특성들은 기술적, 분석적, 도구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수용적, 표현적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특성은 Bem(1974)의 심리적 양성성이론과 일치한다고 본다. Bem은 건강한

개인은 엄격한 성유형화된 정체감을 획득하기 보다는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적 특성(행위주체성)과 여성적 특성(친교성)간의 균형을 이루는 양성성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양성성정체감의 개인은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있고, 성취지향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한다(Kaplan & Sedney, 1980 ; Hyde, 1991).

그러므로 상담장면에서 바람직한 상담자의 성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양성성정체감의 상담자는 상담자 스스로가 문화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남녀 내담자에게 동등한 성역할 발달의 포괄적인 개념을 재구조화 하여 그들의 정체를 찾도록 도와주는 상담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Perry와 Thomas (1980)는 양성성정체감의 치료자들은 심리치료 과정중에 내담자와 더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 할 수 있다고 하였다.

Harvey와 Hansen(1999)의 연구에서도 양성성정체감의 상담자들은 내담자와 의사소통을 더 잘 하며 다른 정체감의 상담자보다 내담자를 더 잘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상담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융통성있는 행동이 요구되어지는데 즉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표현적 행동(친교성)과 도구적 행동(행위주체성)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양성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하진의, 1989).

한수미(1994)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연

구한 결과 그들 모두 남성성, 여성성정체감의 상담자보다 양성성정체감의 상담자를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 여성성정체감과 같이 특정하게 성고정화된 상담자보다는 양쪽 모두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양성성정체감의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면서, 내담자에게 높은 선호도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다시말해서 상담자의 성역할 특성은 내담자의 상담희망 및 상담지속여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수형, 1991).

요약하면 상담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상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특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특성은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남성중심문화권인 한국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고정관념이 폭넓게 잔존해 있어 불평등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상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탐색해 보는 것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연구라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sex)에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탐색하고 그 문제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는 상담자 스스로 의식향상이 된 양성성개인임이 요구된다.

## 한국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성장한 남녀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탐색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방법

#### 1. 표집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대도시에서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남녀 상담자 총 1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07명(남: 41명, 여: 6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집대상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 2. 측정도구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김영희(1990)의 한국형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한국형성역할 검사는 남성성변인 15문항, 여성

성변인 15문항, 중성성변인 1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류 방식은 중앙치분리법을 사용하였다.

#### 3. 검사기간 및 절차

본 검사는 1999년 2월 5일 ~ 4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검사실시는 연구자들이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했던 상담자들에게 직접 실시하였거나, 또는 상담자에게 우편으로 질문지를 전달하여 회수하였다.

#### 4. 통계적 분석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P(%),  $\chi^2$  검증을 사용하였다.

### 결과 및 논의

한국 상담자의 개인적 변인(성별, 연령, 결혼

표 2. 표집대상의 인적사항

( ) : %

		성 별		총 합
		남	여	
나 이	30세 이하	8 ( 7.5)	31 (29.0)	39 (36.4)
	31세 - 40세	22 (20.6)	19 (17.8)	41 (38.3)
	41세 이상	11 (10.3)	16 (15.0)	27 (25.2)
결 혼	결혼	31 (29.0)	43 (40.2)	74 (69.2)
	미혼	10 ( 9.3)	23 (21.5)	33 (30.8)
상담경력	3년 이하	7 ( 6.5)	23 (21.5)	30 (28.0)
	3년 - 10년	24 (22.4)	30 (28.0)	54 (50.5)
	10년 이상	10 ( 9.3)	13 (12.1)	23 (21.5)
총 합		41 (38.3)	66 (61.7)	107 (100)



여부, 상담경력)에 따라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chi^2$  검증을 한 결과 분석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상담자의 성별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

<표 3>에서 한국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는 남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남성상담자집단의 경우에는 그들의 성(sex)과 일치한 남성성정체감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양성성정체감(26.8%), 미분화정체감(24.4%) 그리고 여성성정체감(12.2%)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성상담자 집단은 양성성정체감을 나타내는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미분화정체감(28.8%), 여성성정체감(24.2%) 그리고 남성성정체감의 비율이 12.1%로 가장 낮았다.

상담자 집단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에서 두드러진 점은 남성상담자집단의 경우 남성성정체감의 비율이 다른 정체감 유형의 비율보다 훨씬 높으며, 여성상담자집단에서는 양성성정체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상담자 모두 반대되는 성의 정체감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상담자집단이 한국 가정에서의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특성을 강조하는 성역할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양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사회·문화는 서

로 반대되는 성의 특성을 소유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양성성의 특징적인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Bem(1974)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양성성정체감의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행동이 유연하고, 적응을 잘하며, 자존심이 높다고 하였다. Perry와 Thomas(1986), Harvey와 Hansen (1999), 하진의(1989), 김수형(1991), 한수미(1994) 등도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양성성정체감의 상담자들이 상담의 과정 및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의 여성상담자의 양성성정체감 비율이 34.8%로 가장 높고, 남성상담자의 경우 26.8%로 2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Harvey와 Hansen(1999)이 지적했듯이 심리학을 접하는 직업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학습에 의해 획득된 특성이라고 본다.

특히 여성상담자집단의 경우 미분화정체감이 28.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속에서 성장한 여성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 여성은 미분화정체감의 비율이 초·중·고·대학교 그리고 중년기에 이르러서도 높은 비율을 유지한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사회 각 부면의 변혁기를 맞으면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있으나 남성중심적인 지배체제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중심적 유교문화와 남녀평등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사이에서의 혼돈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이다.

표 3. 상담자의 성별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

( ) : %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전체	$\chi^2$
성별 남	11(26.8)	15(36.6)	5(12.2)	10(24.4)	41(100)	$\chi^2 = 9.60$ df = 3 p = .022
여	23(34.8)	8(12.1)	16(24.2)	19(28.8)	66(100)	

표 4. 연령, 결혼여부 및 상담경력별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

( ) : %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전체	$\chi^2$
연령	30세이하	10(15.6)	5(12.8)	10(25.6)	14(14.0)	39(100)	$\chi^2 = 6.47$
	31세-40세	14(34.1)	12(29.3)	7(17.1)	8(19.5)	41(100)	df = 6
	41세 이상	10(37.0)	6(22.2)	4(14.8)	7(25.9)	27(100)	p = .373
결혼	결혼	28(37.8)	15(20.3)	16(21.6)	15(20.3)	74(100)	$\chi^2 = 7.56$
	미혼	6(18.2)	8(24.2)	5(15.2)	14(42.4)	33(100)	df = 3 p = .056
상담경력	3년이하	6(20.0)	6(20.0)	7(23.3)	11(36.7)	30(100)	$\chi^2 = 4.53$
	3년-10년	18(33.3)	12(22.2)	10(18.5)	14(25.9)	54(100)	df = 6
	10년이상	10(43.5)	5(21.7)	4(17.4)	4(17.4)	23(100)	p = .605

## 2. 한국 상담자의 연령, 결혼여부 및 상담경력별 성역할정체감 유형분포

<표 4>는 한국 상담자의 연령, 결혼여부 및 상담경력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연령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30세 이하의 상담자 집단은 여성성정체감(25.6%), 양성성정체감(15.6%), 미분화정체감(14.0%), 남성성정체감(12.8%)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고, 31세~40세 사이의 상담자집단은 양성성정체감(34.1%), 남성성정체감(29.3%), 미분화정체감(19.5%), 여성성정체감(17.1%)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1세 이상의 상담자집단은 양성성정체감(37.0%), 미분화정체감(25.9%), 남성성정체감(22.2%), 여성성정체감(14.8%)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연령별 분포의 통계적 의의는 없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자의 양성성정체감이 30세 이하는 25.6%, 31세~40세 사이는 34.1%, 41세 이상은 37.0%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담자집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적특성(친교성)과 남성적특성(행위주체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성성정체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둘째 상담자의 결혼여부로 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분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 경향성을 살펴보면 결혼한 상담자 집단은 양성성정체감(37.3%)의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성정체감(21.6%), 그리고 남성성, 미분화 정체감이 20.3%의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미혼인 상담자 집단은 미분화정체감(42.4%), 남성성정체감(24.2%), 양성성정체감(18.2%), 여성성정체감(15.2%)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양성성정체감의 비율이 결혼한 상담자 집단은 1위로 37.3%이나, 미혼인 상담자 집단의 양성성정체감은 18.2%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미분화정체감이 4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담자의 상담경력별 성역할정체감 유형 분포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그 경향성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경력이 3년 이하인 상담자 집단은 미분화정체감(36.7%), 여

성성정체감(23.3%), 그리고 남성성, 양성성 정체감이 20.0%의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년~10년인 상담자 집단은 양성성정체감(33.3%), 미분화정체감(25.9%), 남성성정체감(22.2%), 여성성정체감(18.5%)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경력이 10년이상인 상담자 집단은 양성성정체감(43.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남성성정체감(21.7%), 여성성정체감, 미분화정체감이 각각 17.4%의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상담경력이 10년이상인 상담자 집단의 양성성정체감이 4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3년~10년인 상담자 집단의 양성성정체감은 33.3%, 3년이하인 상담자 집단은 20.0%로 나타났다. 즉 상담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상담의 효과를 촉진시키는 양성성정체감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의 상담자집단은 연령과 상담경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결혼생활의 경험을 가진 상담자일수록 친교성과 행위주체성이 균형을 이룬 양성성정체감의 개인이 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arvey와 Hansen(1999)이 지적했듯이 상담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바람직한 상담자의 인성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양성성정체감의 특성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맺는말

한국 사회의 남성중심적 가치관은 여성과 남성에 대해 전통적 고정관념을 갖게 하여 그들

이 자아실현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

특히 상담자가 갖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태도를 상담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특정한 성으로 고정관념화된 상담자보다는 여성적(친교성) 특성과 남성적(행위주체성) 특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양성성정체감의 상담자가 상담장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상담지속,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의 진행을 위해 상담자의 양성성정체감이 요구된다. 양성성정체감의 개인으로 변화된 상담자는 상담에서 여성과 남성내담자를 동등한 개인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며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는 내담자의 잠재능력과 정체를 일깨워 그들이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하는데 적합한 상담환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 전통주의를 고수하려는 의식구조가 내재해 있는 한국적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 상담자들에게 성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의 획득, 친교성과 행위주체성의 균형있는 발달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갖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확립하게 해주는 평등한 재사회화의 경험, 즉 재교육이 요구된다.

상담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의식변화는 그들로 하여금 성차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개방된 사고를 갖게 하여 여성과 남성 내담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동순(1992). 성인여성의 심리-정신치료에서 경험한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 32, 23-27.
- 김수형(1991). 내담자의 상담자 선호 및 자기공개 의지에 미치는 내담자성, 성역할정체감,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85). Feminist Therapy 의 이론적 고찰. 인간이해, 제7집, 13-21.
- \_\_\_\_\_(1990). 성역할정체감과 학습된 무기력. 정민사.
- \_\_\_\_\_(1992). 여성중심치료. 경기교육논총, 2, 303-313.
- \_\_\_\_\_(1995). 학령전 아동의 한국형성역할 검사 개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34집, 183-213.
- 김은주(1990). 여성을 위한 의식향상 훈련이 양성성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혜숙·한정신·전경옥·김영희·김영란(1998). 한국 주부의 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제37호, 167-292.
- 나혜영(1984).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성역할고정관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숙(1987). 기혼여성의 성역할특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은(1999). 성역할정체감과 전문적 심리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애선(1993).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대룡(1996). 교사의 성역할유형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생의 성역할유형에 대한 교사의 기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덕수(1988). 서어비스 산업에서의 신종업: 호스티스. 한국여성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111-127.
- 송은경(1993).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유형간의 관련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효숙(1990). 학령전 아동의 성역할고정관념 및 관련변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인숙(1995). 대학생의 성역할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현(1983). 여고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1). 남녀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한 고찰 - 성역할 사회화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15집, 21-35.
- 이규미(1996). 여성상담의 특징과 여성상담자의 전문적자질. 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 제1집, 128-138.
- 이송자(1993). 국민학생의 진로의식과 자아개념 및 성역할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1981). 학령 전 아동의 성역할고정관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1995). 유치원아동의 성역할정체감유형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1985). 여성상담의 기초개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상담의 실제 교육자료 300-4.
- 이은순(1987). 여성상담과 여성문제. 학생생활연구, 23, 39-59.

- 이정균·변영찬(1987). 한국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VIII). *신경정신의학*, 26, 34-44.
- 이현옥(1979). 유아의 성역할 학습을 위한 유치원 교사 및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성(1997). 상담의 여성성과 여성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 1-13.
- 이홍립(1985). 고교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아실현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정(1987).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공회피동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운선(1993). 11세 아동의 성역할유형과 지능구성 3요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정(1987). 중년 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하경·서병숙(1993).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156-167.
- 전은경(1992). 고등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영(1985). 의식향상훈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인선(1986).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역할태도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1995. 4. 15). 한국인 변화하는 의식.
- 최연순(1987). 아동의 성역할고정관념과 분류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림(1989). 여성상담의 과정 및 기술. *인간이해*, 10, 49-57.
- 최해림·김영희(1996). 한국 여성의 심리장애와 여성치료의 방향. *상담과 심리치료*, 8, 153-167.
- 하진의(1989).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수미(1994). 상담자 성역할 특성에 따른 내담자의 선호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신·박임전·김영란·김영희·오재림(1993). 여성의 정치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I). *아세아여성연구*, 32, 169-212.
- 한정신·김영희·김영란·오재림(1994). 여성의 정치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II). *아세아여성연구*, 33, 155-245.
- 황원준·정용균·김종주(1995). 정신과에 처음 내원한 환자의 6개월 후 추적조사. *신경정신의학*, 34, 59-69.
- 황 은(1991). 대학생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yn, J.H., & Becker, L.A.(1984). Feminist therapy with chronically and profoundly disturbe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202-208.
- Bem, S.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roverman, I.K., Broverman, D.M., & Clarkson, F.E.(1970). Sex 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men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1-7.
- Harvey, J.A., & Hansen, C.E.(1999). Gender role of male therapists in both professional and

- personal life. *Sex Roles*, 41, 105-113.
- Hyde, J.S.(1981). *Half the human experience; The psychology of women*. D.C Heath and Company.
- Kaplan, A.G., & Sedney, M.A.(1980). *The psychology and sex role;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김태련·이선자·조혜자 공역(1993). 성의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O'Malley, K.M, & Richardson, S.(1985). Sex bias in counseling: Have things changed.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294-299.
- Perty, R.A., & Thomas, J.R.(1986). The effect of androgyny on the quality of psychotherapeutic relationships. *Psychotherapy*, 23, 249-251.
- Sturdivant, S.(1980). *Therapy with woman: A feminist philosophy of treatment*.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A Study on Korean Counselors' Gender Role Identity

Hae rim Choi  
Sogang University

Young Hee Kim  
Kyonggi University

In recent years gender fair attitudes and behaviors begin to be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to the sexual stereotypes in psychology, education, psychiatry and other disciplines. Studies on psychological sex typed differences, sex roles and feminine counseling have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However, there has been no research to date to investigate Korean counselors' types of gender role identity which are likely to influence the process of assessing, diagnosing and treating clients. Theoretically androgynous counselors are expected to facilitate better counseling outcome. Androgynous counselors are believed to be more flexible in their approach to the client.

It is our interest to find out how Korean counselors who have brought up in a male dominant traditional society enact gender roles. The result shows that types of gender role identity i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of Korean counselors; 34 percent of female counselors and 26.8 percent of male counselors are androgynous.

Implication of the study is Korean counselors need to be aware of their gender 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and gender related issues should be integrated in the training of Korean counselors.